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해외 연수 출장보고서**  
**- 미국·일본 -**

**2009. 11.3~11.10**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동수**

---

---

# 차 례

---

---

## I. 출장개요

- 1. 출장 개요 ..... 2
- 2. 세부 일정 ..... 3
- 3. 출장자 명단 ..... 4

## II. 미국 출장

- 1. SCAG ..... 6
- 2. LAEDC ..... 9
- 3. Metro Regional Center ..... 11
- 4. DICCRD ..... 14

## III. 일본 출장

- 1. 추부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 ..... 18
- 2. 국토교통성 ..... 23

---

# **1. 출장 개요**

---

**1. 출장 개요**

**2. 세부 일정**

## □ 출장목적

-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권한과 역할, 광역경제권 소속 광역자치단체간 협의 체계,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체계, 사업 추진 프로세스 등 광역경제권 추진 선도국가의 정책현황 및 사례 파악
- 광역경제권별로 설립한 광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운영하면서 광역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해외기관을 방문, 광역거버넌스의 바람직한 구축 방향에 관한 주요 자료 입수
- 광역경제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 광역위, 해외기관 간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와 협력 및 정보교환 기회 제공

## 2

## 세부 일정

일 자	주요 일정(안)	비 고
11.3(화)	인천 → 로스엔젤레스 (15:00~10:00)	KE017
11.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Live 방문</li> <li>○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브리핑</li> <li>○ LAEDC(Los Angel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브리핑</li> <li>○ LA무역관장, 사이먼 최 박사 초청 만찬(용수산)</li> </ul>	로스엔젤레스
11.4(수)	○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견학	
11.4(수)	로스엔젤레스 → 포틀랜드 (17:00~19:13)	AA565
11.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tro Regional Center 브리핑</li> <li>○ Metropolitan Council Meeting 방청</li> <li>○ 실리콘 포레스트 견학</li> </ul>	포틀랜드
11.5(목)	포틀랜드 → 시애틀 (17:00~20:00)	전용버스
11.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잉팩토리 견학</li> <li>○ 씨애틀 총영사 초청 오찬</li> <li>○ Discovery Institute's Cascadia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브리핑</li> <li>○ 광역경제권 구축사례 전문가 초청 토론회(저녁)</li> </ul>	시애틀
11.7(토)	○ SEATTLE CENTER 견학	
11.7(토)	시애틀 → 인천 (13:00~17:35)	KE020
11.8(일)	인천 → 나고야 (18:50~20:40)	KE751
1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부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 브리핑</li> <li>○ 나고야 총영사 초청 오찬</li> </ul>	나고야
11.9(월)	나고야 → 도쿄 (14:10~15:53)	신칸센 노조미124
11.10(화)	○ 국토교통성 브리핑	도쿄
11.10(화)	도쿄(나리타) → 인천 (17:00~19:40)	KE002

---

## **|| .미 국 출장**

---

**1.SCAG**

**2.LAEDC**

**3.Metro Regional Center**

**4.DICCRD**

1

## SCAG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 면담자 : Simon Choi (Program Manager)

### □ 남가주 정부 협회

- 남가주 정부협회는 38,000 평방 마일의 면적에 약 인구 1800만 명이 거주하는 남가주 6개의 카운티(Los Angeles, Orange, San Bernardino, Riverside, Ventura and Imperial)가 참여하는 광역계획기구
- 광역계획조직기구로서의 정부 협회는 연방정부로부터 교통, 성장 관리, 위험 폐기물, 그리고 대기오염 등의 분야에서의 연구와 중 장기 계획수립을 담당

### □ 조직구조

- 남가주 정부협회에서는 보통 4월이나 5월 중 연간 1회 총회 (General Assembly)를 개최하여 남가주 정부협회 회원 정부의 대표단과 실무진을 구성
  - 총회에서는 논의할 정책에 관한 포럼의 장이며, 각 시와 카운티의 대표들은 협회에서 논의할 의제들을 발제하는 한편, 총회 시작일 45일 이전 남가주 정부협회장(President)에게 통보
  - 이런 의제들은 남가주 정부협회의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에 결의안 형태로 제출되는데, 협회장은 결의안 위원회(Resolution Committee)를 임명하여 지역위원회에게 실행권고안을 제출
  - 의제는 최종적으로 총회까지 전달되지만, 만일 2/3 이상의 찬성 투표가 있을 경우 결의안이 총회로 직접 상정되기도 함.

- 또한 남가주 정부협회의 총회에서는 차기 회계연도의 일반예산을 심의하고 새로운 협회장, 제1 부협회장, 제2 부협회장을 선출
- 남가주 정부협회의 정관(Bylaws) 수정은 남가주 정부협회장에 의해 임명된 정관 위원회가 총회에서 심의하고 수정안은 지역위원회의 승인 절차로 이관되고 최종적으로 협회장에게 제출
- 각 회원 시들의 대표단(Representatives)과 대리인(Alternate)은 시장에 의해 선출되는데 LA시의 경우 항상 LA 시장이 직접 그 대표단이 되며 카운티의 경우 의장이나 회원 카운티 감독관이 됨.
- 이렇게 구성된 대표단들은 15개 회원 시들과 3개의 회원 카운티 이상의 서명요청을 받아 특별총회소집 요청.
- 각 회원 시와 카운티는 총회에서 1명의 대표단과 1명의 대리인을 가지지만 LA시의 경우 인구규모를 감안하여 3명의 대표단과 3명의 대리인을 가지며 각 회원 시들과 카운티에서는 정기총회 45일 이전에 각 대표단과 대리인의 명부를 상호 교환하여야 함.

## □ 남가주 정부협회의 주요업무

- '지역통합계획(Regional Comprehensive Plan)'와 같은 지역발전계획 수립
- '지역교통계획'과 '지역교통개선프로그램' 등과 같은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사업의 유지
- 인구예측, 통합적 토지이용, 주택, 고용, 교통, 남해안 대기관리계획 전략 등의 관리 및 발전과 중부해안과 남동부 사막 분지의 대기관리계획에 있어서 공동간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연방정부의 「깨끗한 대기 법령」에 따라 대기계획 및 프로그램의 준수
- 권위있는 지역기관으로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직접적인 개발 행위들에 대해 범 지역정부적인 검토
- 지역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 보고서 검토
- 연방 수질오염규제법령을 준수하고 폐기물 관리계획 기관으로서의 권위 있는 역할
- 지역주택평가 마련을 위한 주정부의 법에 입각한 책임
- 샌디에고 정부협회, 산타바바라 시군구계획위원회, 캘리포니아 위생안전법에 따른 남가주 위험폐기물관리계획 등과 공조
- 지방정부협의회(Council of Governments)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통합행정력(Joint Power Authority)를 지니고 있어 각 지역 간의 문제를 조정

## □ LAEDC 기관 개요

- LAEDC는 국토개발, 경제 및 마케팅활동을 통한 LA 카운티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LA카운티 이사회에 의해 1981년 설립
- LAEDC의 주요임무는 LA카운티 지역을 위한 사업신장, 고용 창출 및 유지
  - 단지 지역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LAEDC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넓이와 효과 확대에도 노력
- LAEDC의 사업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152,000개에 달하는 직업의 창출과 유지를 도왔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신장의 효과로는 75억불에 달하며, LA카운티의 매년 세금에 대한 혜택은 1억2천7백불에 달함
- LAEDC는 남가주 리더쉽 의회 및 LA-롱비치 세계 무역 센터의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시설을 통하여 강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 순향적 리더쉽을 촉진

## □ LAEDC 사업지원

- LAEDC는 LA가 사업확장을 하기위한 최대의 이점을 지닌 지역으로써 지원을 제공하기위해 돕는 역할을 수행

- 상공회의소와의 협력, 무역 기관, 사업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 등과 폭 넓은 협력을 통해 LAEDC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제발전 전문가 팀이 활동 중
  - 이러한 정보들은 크고 작은 중요 기관 및 의사 결정자들에게 제공되어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사업에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 □ 경제 발전 센터

- 경제 발전 센터는 LAEDC의 지역적 프로그램이며, 공적인 이윤을 위한 협력 또한 이 중 하나임
- 센터는 남가주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영향력 및 지역 사업 리더쉽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등 업무 수행

#### □ 경제 연구를 위한 카이저 센터(The Kyser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 카이저 센터의 목표는 남가주 시장의 빠른 변화와 다양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 카이저 센터의 연구는 6개 주 지역(Los Angeles, Orange, Riverside, San Bernardino, San Diego and Ventura counties)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관한 연구를 문맥화하며 캘리포니아 경제에 대한 분석 수행
- 또한, 카이저 센터는 이 지역의 중요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러한 활동들의 리스트는 다양하고 많음. 카이저 센터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며 많은 지역의 기본적인 산업들은 빠른 변

화의 중심에 있기도 함

3

## MRC(Metro Regional Center)

- 면담자 : Rodney Park (Councilor of District 1)

### □ 광역지역센터

- 광역지역센터는 대기 및 수질 개선, 경제활성화, 교통시설 개선 등을 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포틀랜드 광역지역 내 25개의 시와 3개의 카운티(Clackamas, Multnomah and Washington)를 공간적 대상 (인구는 약 150만명)으로 하고 있음
- 광역지역센터는 Metro내 지역사회의 번영, 문화적 어메니티, 경제적 활력, 위생적이고 친미적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보전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MRC 배경

-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1950년대부터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포틀랜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행정구역을 넘어선 범지역적인 개발 등과 같은 성장과 계획에 있어서 조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인접 농촌지역의 도시화 등과 같은 면에서 자연적으로 지역간의 공조체제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음.
- **(지역적 책임)** 오늘날 광역지역센터는 폐기물 처리, 자연지역보존, 장기발전계획, 주거지 복구, 박물관 및 공연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문제의 해결사로 또한 지도자로 성장하였음.
- **(오레곤의 혁신)** 광역지역센터는 종합적인 토지계획, 공공해안시설, 병 법안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귀중한 정책적 행정적

혁신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1970년대의 비전을 지닌 리더쉽을 통하여 현재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오레곤에 이르렀음.

## □ 조직 및 재정

- **(조직)** 광역위원회(위원장, 6명의 관할지역 위원, 감사), 위원회 사무국, 감사실, 광역 법률실, 재정및행정서비스실, 인사처, 공공부문 및 정부관계실
- **(예산)** 예산 협의 과정은 위원회의 목표, 중요한 성공요인, 프로그램과 성과, 제한된 가운데 지출우선순위 등이 고려된 전략적인 토의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관의 운영을 포함
  - 메트로 박람회 위원회, 오레곤 동물원, 지역녹지공원, 그리고 고체폐기물 및 쓰레기.
- **(수입)** 전년도잔여기금(유권자 승인의 채권, 특수용도의 기금, '08-'09 회계년도 잔여기금은 \$208 million), 당해연도 수익기금으로 총당
  - 당해연도 수익기금은 고체폐기물처리 부과금(\$60 million), MRC 운영 관련 세금수입(\$10.6 million), 오레곤 컨벤션센터 건축, 동물원 프로젝트 그리고 자연지역 프로그램 관련 의무적인 채권발행(\$33.7 million)으로 조달
- **(지출)** 광역지역센터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직접적 사업에 재정을 지출, 구체적으로는 교통계획, 성장관리, 자연과의 교감, 수질 및 대기오염 개선, 쓰레기 감소 및 교육사업에 투자
  - 또한 오레곤 동물원, 컨벤션센터, 엑스포센터, 포틀랜드공연센터, 지역공원 및 녹지시설, 폐기물 처리장 등과 같은 시설 운영자금

으로 약 \$206.9 million을 사용, Gilliam 카운티 소재 Columbia Ridge 고체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약 \$29.2million를 지출

- 자본금의 가장 큰 사용처는 자연지역프로그램을 위한 토지수용이며 약 \$38.9 million에 이르고, 고체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 약 \$2.5 million, 동물원 시설개선에 \$5.6 million, 지역공원시설 개선에 \$8.2 million, 그리고 MERC 소재 시설개선사업에 \$2.2 million을 사용할 계획.

## □ 기타

- 국가 수변 모니터링 보고서 : 수변지역의 위생·보건 상태를 장기간 관찰하고 모니터링하여 야생동물서식지를 보호하고 수질을 관리
- 자연지역프로그램감시위원회 : 광역위원회는 유권자들로부터 승인된 자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를 운영
- 광역내환경조치팀 (ENACT) : 재활용과 쓰레기 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한 친환경적 광역내 시설 및 관리에 역점
- 2040 계획 : 2040년을 겨냥한 지역발전계획

## □ Cascadia Center

- Discovery 연구소에서 Cascadia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에 설립된 연구센터로서 주로 지역의 교통문제와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이슈들을 다루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역인 Cascadia 복도에 위치한 Puget Sound 주변지역의 수변교통과 지역개발이 주된 연구영역이며 최근 미국에서 외국 오일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플렉스연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을 교차전환할 수 있는 자동차의 개발노력 등과 같은 복합적 프로그램들을 다룸.
- 대도시, 주, 지역, 그리고 심지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독립적 역할이 커다란 장점이며 건설적인 정책 분석, 전문가 조언, 복잡한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도출하는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주재

## □ 주요 기능 및 역할

- 교통의 관리, 계획 : Cascadia 센터는 지역간 협조에 따른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 수상교통의 관리와 재정적 개편을 지원
- Central Puget Sound 중심의 복도형태의 회랑지대의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이 지역을 광역적 계획의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인프라 개선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활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허브, 복도, 그리고 관문 : 이 회랑 지역에 있어서 많은 교통량을 보이는 수상교통은 광역 간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허브, 복도, 관문지역이 관리와 계획, 그리고 재정 적 측면에서의 개선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
  - 도로의 교통체증은 시간낭비부터 막대한 교통비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각 지역들은 거점 연계를 통한 원활한 버스, 철도, 수상교통체계의 개발이 불가피
- 기술과 에너지 : 탄소기반경제의 늘어나는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체에너지와 플렉스연료, 플러그인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지능교통시스템 개발 등

## □ Discovery 연구소

- Discovery 연구소는 연구원, 스태프, 인턴, 자원봉사자, 회원과 정책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협회 기능의 비영리 기관
- 현재 진행 중인 사업분야는 기술, 과학과 무화, 법률 개혁, 국방, 환경과 경제, 민주주의 제도의 미래, 교통, 종교와 삶, 정부지출, Cascadia 지역의 양국 간 외국인정책과 공조 등이며 주로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의 연구원들과 회원, 이사회 그리고 스폰서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

## □ Discovery 연구소의 기능

- Discovery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세미나, 컨퍼런스, 토론 등에서 자신들의 연구분석 결과나 제안을 발표하며 보고서와 기사, 책, 의회증언록,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소의 견해를 제시



- 또한, 선출직 공무원, 기업가, 학계 전문가, 방송매체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칙과 정책 그리고 연구소에 의해 지지되는 실무안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홍보 및 컨설팅을 함.
- Discovery 연구소의 기본원칙은 신의 존재와 인간본연의 영속성, 미국 선조로부터 전수 받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유와 책임에 따른 사회적 의무, 자발적인 정신, 지속적인 미국의 세계적 리더쉽,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연구소의 연구원, 회원, 이사회, 어드바이저 및 행정요원들은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공공정책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연결하며 시애틀에 본사를 워싱턴 DC에 지역사무소를 개설
  - 연구원들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와 프로젝트는 연구소의 본연임무의 성격과 공헌가능성에 따라 선택
  - 대부분 선택된 주요 이슈들은 국가적 혹은 범국가적 차원의 과학, 기술, 환경, 경제, 국제관계, 문화, 국방, 법률 개혁, 종교, 교통,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간 Cascadia 지역의 공조와 관련한 사항
  - 재정적으로 Discovery 연구소는 비영리교육기관으로서 자선기금, 기업과 개인 그리고 회원들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음.

---

## **III . 일 본 출 장**

---

**1. 중부권 광역지방계획 협의회**

**2. 국토교통성**

1

**중부권 광역발전계획  
(나고야 광역지방계획 협의회)**

- **면담자 : 이리가와 미츠히로 (중부권 광역지방계획 추진실장)**

□ **주요 목표와 주요 사업**

-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경쟁력 강화 : 해외기업의 유치를 도모하는 그레이터·나고야·이니시어티브 등의 대응방안추진, 싱크로트론광이나 항공기의 연구개발거점 등의 정비, 고기능디바이스와 광기술 등의 차세대산업 이노베이션의 유발이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환경공생사회의 실현 : 수소 등의 신에너지 연구개발의 촉진, 생물다양성조약COP10을 계기로 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활동 등을 추진
- 국내외의 다양한 교류의 확대 : 국제공항, 국제항만의 기능강화, 국제교류·물류거점으로서의 고속교통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내용

□ **전략 목표 요약**

- 추부권의 자원을 살린 국내외의 다양한 교류 확대
-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환경공생사회를 실현하는 환경선진권의 형성
- 누구나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 안전·안심, 재해에도 강한 지역 만들기

## □ 계획책정의 의의

- 추부권 광역지방계획은 향후 대략 10개년을 전망한 장래상을 설정, 장래상 실현을 위한 방안을 보여주는 국토형성계획의 일익을 담당
- 추부권은 제조업의 집적 등을 통해, 3대도시권의 일각을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인구중심과 국토축의 결절점이 존재하는 일본의 중심 권역
  - 지금까지 배양된 지식과 경험 등을 살려가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겨냥하여 교류와 연계를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제조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발신함으로써, 자립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의 중심권'을 형성
- 또한 100년에 한번이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계기로, 최근의 지역경제와 고용 등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가면서, 본 계획에서 보여주는 장래상과 발전전략의 추진을 통해 추부권이 '일본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것이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의의임

## □ 계획기간과 계획 구역

- 계획기간은 21세기 전반기를 전망하면서, 향후10년으로 설정
- 계획구역은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등 5개현을 대상으로 하되 인접하는 호쿠리쿠권과 연계하여 동해에서부터 태평양에 걸쳐 발전의 전체구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토호쿠권,

수도권, 긴끼권 등의 광역지방계획구역과 필요한 연계시책도 포함

## □ 추부권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

- 추부권은 3대 도시권의 하나인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나고야 대도시권 외에, 2개의 정령지정도시와 지방중핵도시, 지방중심·중소도시가 중심이 된 지역으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조건을 상이한 각각의 도시권을 구성하는 다극분산형의 지역구조
- 나고야 대도시권으로의 일극집중 경향은 도쿄권, 간사이권과 비교했을 때는 집중도가 그리 강한 것은 아니고 일부의 도시권에서는 추부권역 이외 인접한 다른 권역과의 교류도 왕성
  - 또한 추부권은 일본 동서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바, 추부권을 종횡단하는 토카이도 신칸센, 토메이·메이신 고속도로 및 중앙자동차도 등의 고속교통 네트워크가 대도시권 상호간의 다양한 교류를 촉진
- 이러한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 등을 배경으로 하여, 추부권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구 1인당 총생산액은 '06년 기준 약446만엔으로 수도권에 이은 2위, 역내총생산액은 약77조엔으로 수도권, 긴키권에 이어 3위
  - 환경 측면에서도 후지산과 일본 알프스 등을 비롯한 산들이 많고 이 산에서 흘러내리는 주요하천과 그 유역권인 쿠마노나다 부터 스가모 만에 이르는 태평양과 그 연안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귀중한 생태계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
- 하지만 이곳은 홍수·토사재해·해일 등의 재해에 취약한 지형이며,

토카이지진, 동남해·남해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의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권역

## □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언

### (1)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협동에 의한 계획의 추진

- 인구감소·고령화를 비롯한 경제사회정세와의 변화에 의해 의료·복지의 서비스, 생활교통 등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등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과제가 발생
- 사회의 성숙화, 사회에 대한 공헌의식의 고양,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의해 개인, NPO,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가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활동 공간을 넓히고 있으므로 행정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목적을 서로 공유해서 활동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
- 본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도, 본 계획 책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추부권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구성원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새로운 제3의 기관이 충분히 연계를 하면서, 추부권의 미래상 실현을 향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2) 투자의 집중화·효율화

- 지역정비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사정과 장기적인 투자여력의 감소, 인구감소·고령화시대 등의 조류를 감안하고, 본 계획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정비와 시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투자를 지향
- 사회간접 자본의 노후화, 이에 수반되는 유지갱신투자의 증가

등에 의해 사회자본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활용과 관련사업과의 연계에 의한 코스트삭감 등, 효율적인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 (3) 다른 계획과의 정합·조정

- 본 계획은 국토형성계획 (전국계획) 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부권의 특징을 감안하여 책정
- 추부권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상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환경·복지 등의 국가의 분야별 계획과 각 현의 종합계획을 비롯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 추부권과 관계있는 모든 상위계획과 정합·조정을 해가면서, 효과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

### (4) 계획의 모니터링 등

- 추부권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상의 실현하기 위해 매년도 본계획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진척상황을 파악함과 더불어,
-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는 권역의 장래상과 각 전략목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감안하여, 전국계획과 관련된 정책을 비롯하여 본 계획 전체의 실시상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여 계획을 재검토 하는 등 모니터링을 추진

## □ 국토교통성의 정책

- 일본은 2005년 7월 '국토종합개발법(國土綜合開發法)'의 개정안인 '국토형성계획법(國土形成計畫法)'이 발효되면서 국토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
- 새 법률은 인구감소사회 도래, 세계화 진전, 지방분권개혁 추진 등의 사회변화로 기존 계획체계와 계획이 새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서 개정된 것으로, 개정안의 포인트는 '국가와 지방의 협동에 의한 비전 만들기'와 '개발 중심으로부터의 탈피'로 요약

## □ 전국계획에 광역지방계획 개념 도입

- 지금까지 일본의 국토계획은 법률상 국가주도로 책정하는 전국계획·지방계획·도도부현계획·특정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전국계획과 특정지역계획만을 수립
- 2005년에 새롭게 등장한 '국토형성계획'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전국계획'과, 블록별로 국가와 관계 지자체 등이 협의해서 수립하는 '광역지방계획'의 두 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종전의 국토계획에 지방계획이 명확하게 포함
- 또한, 지금까지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고, 국토계획의 기초가 '개발 중심'이거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 점차 질적 향상 및 지역자원 활용을 중시하는 등 성숙형 사회의 계획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명칭도 '국토 종합개발법'에서 '국토형성계획법'으로, 계획명칭도 '국토형성계획'으로 수정

○ 국토형성계획의 기본이념은 국토형성계획법 제3조에 명시

- 일본 및 세계의 인구·산업·기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① 특성에 맞게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사회, ②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 진흥 등에 의한 활력있는 경제사회, ③ 안전이 확보되는 국민생활, ④ 지구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풍부한 환경이 기반이 되는 국토형성을 천명

□ 광역지방계획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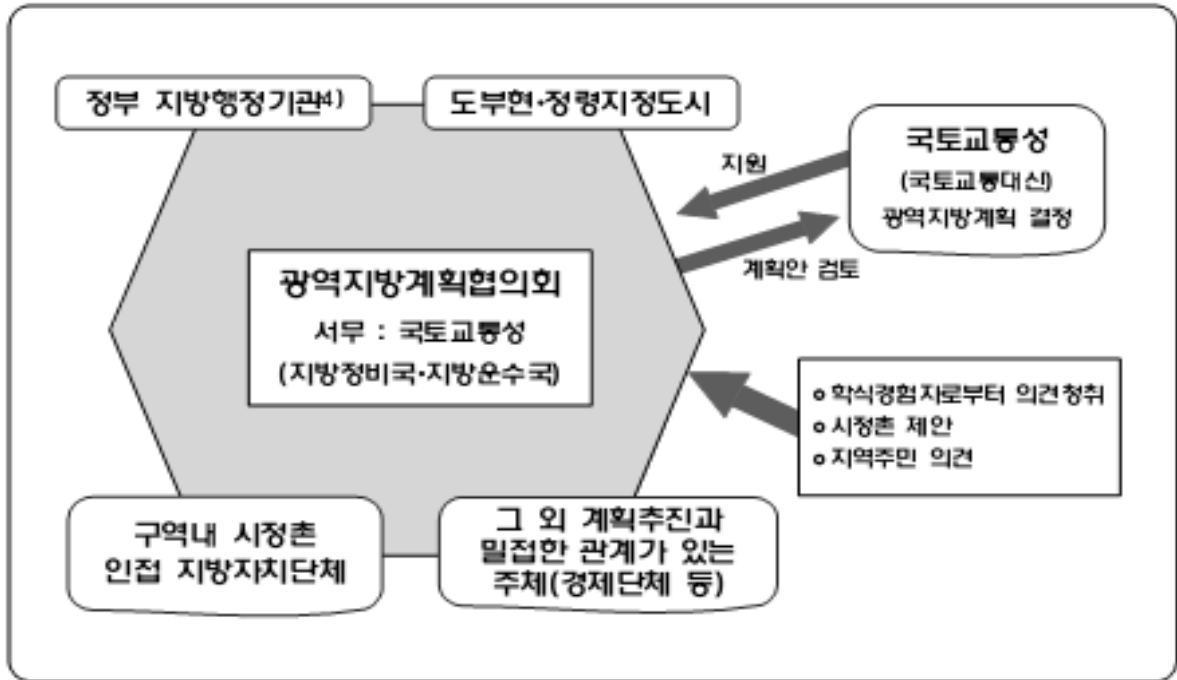
- 국토형성계획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구역인 광역지방계획구역은 표와 같이 8개의 권역으로 구분

[8개 광역지방계획구역]

권역	포함되는 현
토호쿠권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수도권	이바라기현, 토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도쿄도, 시나가와현, 야마나시현
호쿠리쿠권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추부권	나가노현, 키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긴키권	사가현, 교토부, 오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
추고쿠권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시고쿠권	토쿠시마현, 카가와현, 애히메현, 코치현
큐슈권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쿠마모토현, 오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카고시마현

- 이법 제9조에서는 광역지방계획구역은 45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도부현을 구역으로 형성되며, 자연·경제·사회·문화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상당히 인정되는 구역, 일체적으로 종합적인 국토형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정하도록 명시
- 또한, 동법 제10조에서는 광역지방계획구역마다 광역지방계획 및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국가의 관계 각 지방행정기관·관계 도부현 및 관계 정령지정도시에 의해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광역지방계획구역으로서 8개 권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광역지방계획구역 간을 연계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합동협의회 내지 분과회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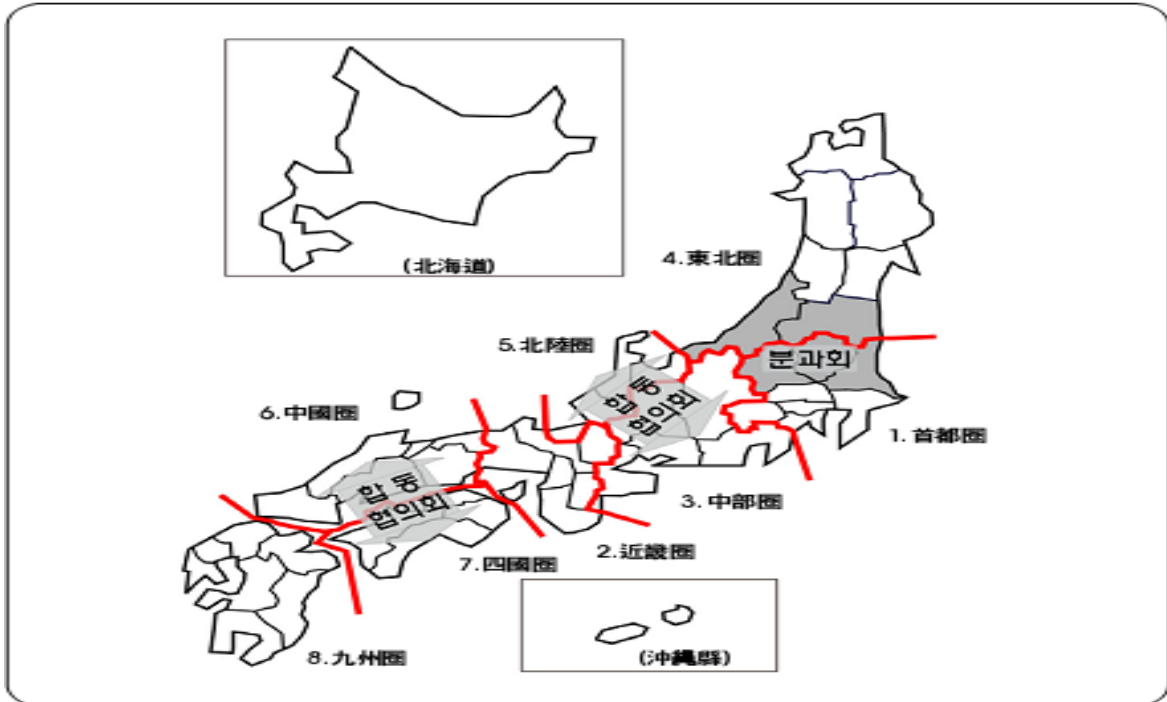
###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체계]



□ 국토교통성 긴키지방정비국의 정책과 조직

- 각 블록의 광역지방계획협의회는 전국계획의 각의(閣義) 결정 후에 정식으로 설치하며, 이에 앞서 각 블록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준비회합이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
- 긴키지방정비국은 2부 5현을 관할하며, 8부(총무·기획·건설·하천·도로·항만공항·영선·용지)와 37사무소로 구성

[합동협의회·분과회의 구성]



- 긴키권 광역지방계획 수립을 목표로 광역지방계획협의회가 정식으로 조직될 때까지 광역지방계획을 검토하는 '긴키권 광역계획 검토회의'를 2006년 12월에 설치

□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지속적·단계적인 추진

- 각 블록별로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제1기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이미지를 명확히 할 수 없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제2기(2006년부터 5년간)에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중점분야의 사업 이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단계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
- 긴키경제산업국의 사례에서는 '간사이 제1인자 프로젝트 네오 클러스터'와 '환경비즈니스 KANSAI 프로젝트 그린 클러스터'를 신설하고, 바이오 프로세스·바이오식품 등의 분야를 추가하는 등 지역에

대한 산학연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잠재력 활용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추진

#### □ 중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실질적 견제장치 필요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광역지자체의 단위를 재검토하여 복수의 도부현을 단위블록으로 하는 광역지방계획구역을 설정하고 광역지방계획구역마다 광역지방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경제단체·시민 등의 의견을 모아 광역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의 입김 또한 여전함
- 국토형성계획(광역지방계획)은 지역블록마다 '광역지방계획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국토교통대신이 '광역지방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 사무국 기능도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계획의 수립권한을 국가가 장악
- 따라서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계획 수립시 중앙의 독주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견제장치와 더불어, 계획수립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